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스 1:1-11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기도했다. 이제는 어떻게 정복할까 기도하게 되었다. 언약을 알고 나서부터 기도응답이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정복할까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놀리던 전도를 정복하고 있다. 경제도 정복하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죽음에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이다. 저주에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주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박살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권세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있는것도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박살을 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박살내고 사단의 모든 역사를 박살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제목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창세전부터 있던 계획이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성가대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 성경이 그렇다. 사윗시대는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고 다윗에 출신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사도 바울 시대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일했다. 거기서 출신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나 귀한 사도이지만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었다. 이것이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 오늘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본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일단 잡아야 한다.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안 사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첫째는 잘 몰라서 그렇다. 여기에 눈이 안 열려서. 여기에 눈 열린 사람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모든 저주의 머리를 깎 약속을 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시대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옛날에 처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 인생 작풍 나올 것이라 했을 때, 그렇겠지 했다. 이 언약을 잡고 발버둥을 치는 사이에 산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거의 그 쪽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도 작풍 하나를 허락하시겠구나. 이렇게 다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쓸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쓰실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약속의 피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는가? 동네에 문화도 못 만든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셨다. 헬라 문화를 밀치고 유대 문화가 없어지게 만들고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문화운동을 했는가? 그는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복음운동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일치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약속된대로 사도바울의 현장에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정복했다. 정치도 뒤집어버렸다. 우리도 미국의 정치를 뒤집을수 있을까? 우리도 미국과 남미의 문화를 새로 쓸 수 있을까? 적어도 영적 문화는 새로 써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과 내 응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려고 하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못한다. 응답이 없어 힘이 없다. 응답이 있으면 힘이 넘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수 있다. 한명으로. 인간은 누구든 원죄의 저주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조금 주신 것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이 일반 은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이다. 이거 있으면 정복할수 있다. 문제를 해결 못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것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고 끝낸다. 그냥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친다. 그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이 언약으로 살면 육신 문제도 정복하고 승리할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만 하고 산다. 그 기도 안에 언약이 없다는 말이다. 기도 안에는 약속의 피가 있어야 한다. 그 래야 응답 받고 정복한다. 이런 신앙생활은 문제와 정복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복음을 정확히 모를때에는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믿습니 다를 계속 했다. 이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줄 알았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다. 답은 이 언약을 누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기도 자체 를 많이 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답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언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기도 안합니다. 응답이 안되니까. 기 도는 언약을 누리라고 주신것인데, 내가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주목을 하는 신자였다. 그런데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15절도 몰랐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깎 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했다. 읽기는 열 번도 넘게 읽었을 것 이다.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 기도는 도구이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언약이다. 기도는 방법이다. 그런데 본질을 놔두고 방법을 많이 하 는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복음을 잘 몰라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는 응답 많이 받는다. 그게 잘하 는줄 알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그것은 2등이 지 1등은 아니다. 우리는 1등을 하고 싶어 한다. 1등 되어야 정복한다. 1 등 되어야 내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종교화 되는 것이다. 언약을 많이 해야 하 는데, 언약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면 종교된다.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잘 안된다. 나도 그랬지만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포기하고 자기 힘 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니 증인이 안된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니가 안해도 이것이면 된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다. 그것이 복음인데. 너는 할필요가 없어, 내가 할거야. 니가 왜 십자가에 죽니? 내가 죽지. 내가 죽었으니 너는 안 죽어도 돼. 너는 증인이 돼. 이 게 십자가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 핵심 포인트 피를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언약이 내 기도 안에 있어 야 하는데, 그냥 기도를 주시라고 계속 했다. 그러서도 보혈은 원죄 때 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이 답으로 사는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이것을 전해서 살리려고. 약속의 피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을 전해 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시대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정 복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시작하셨다. 요셉을 불러서 애 굽을 뒤집고 세계복음화를 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정복했다. 새 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줄 믿는다. 이유가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똑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그 복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 나는 것을 믿는다.

1.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며 내 응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절대 없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아무도 못 막는다. 진짜 막으려는 사람은 죽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 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이 사야서 45:1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에게 항복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성들의 모든 성문을 열고 닫히지 않도록 해서 정복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 문을 쳐서 부수와 쇠뿔장을 꺾는다는 것이다. 앞서가서 모든 것 정리하시 겠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 갈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정리하겠다고 하 셴다. 3절에는 내가 숨겨놓은 많은 재물을 너에게 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인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고레스는 본래 메대 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 사람의 일생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라. 그런 데 공주의 아버지 왕이 어느날 꿈을 꾸는데, 꿈을 점쟁이 불러서 해석을 시켰다.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는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뜻이

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안된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되면 고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를 아무런 신분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그 공주가 잉태를 할적에 이 왕이 꿈을 다시 꿔다. 또 점쟁이를 불렀더니 같은 해석을 내놨다. 그래서 왕이 공주를 불렀다. 그래서 왕궁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 잘해주는 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안 죽고 살아났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판단력, 통솔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결국 주위의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이름도 그대로 써 놨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마 이사야의 예언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나간 세월들, 예언들을 보면서 고레스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엄청난 고백을 한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고백한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너 성전 지으라.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다. 그는 이방인이다. 4절에는 은과 금과 그 밖의 많은 물건들로, 짐승들로 도와주고, 너희가 기쁘게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 뒷 부분에 보면 느브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하였다. 11절에 금은 그릇이 모두 4,500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가 준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만세전에 계획으로 지켜서 왕이 되도록 힘을 준 이유이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 하나 때문에 고레스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레스같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겠는가? 미국 교회에 역사를 새로 쓰면 고레스만한 응답이 될까?

남미 선교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 제자를 세워 제자가 남미 끝까지 간다면 고레스같은 응답이 될까? 이것이 오기인가? 이것은 오기가 아니다. 증거는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보다 바울을 선택했는가? 그의 복음이 더 정확했다.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졌는데, 바나바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왜 그렇게 되었겠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복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답도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봐야 할 이유이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성경에 써 놨다. 말씀 없이 하시는 법이 없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 누가 나처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45장 읽어보면 나 외에 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신이 나처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써 놨다. 그것이 바로 부활 메시지 4개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다. 나는 이것을 한다. 내가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는 너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내가 낫게 하겠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반드시 후대 운동은 일어난다. 낙심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다. 세계 복음화 일어날 테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세시대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다. 오늘 5절에도 보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다 성전 지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감동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론내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광야에 주어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다. 이유 필요 없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때에도 용서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 간다고 버틸때에는 용서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가보니, 기생 라합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대의 일을 양보하지 않는다. 안간다는 소리만 안했

어도 죽지 않았다. 하늘에서 먹을 것 매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전쟁 나면 다 이겼다. 들어갔을때에 전쟁하는데 해가 정지했다. 이기라고. 내가 앞서가서 모든 것 정리하겠다. 간다고 해도 자기들이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입으로 간다고 말한 사람은 다 이 축복을 받았다. 안간다고 한 사람은 광야에 떠돌다가 40년 만에 다 죽었다. 지옥을 갔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생이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다. 가다가 중간에 방황하다가 죽었다. 슬픈일이다.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광야를 헤맨 것이다. 목표 없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향, 부활 메시지 4개,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방향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미국은 뛰어난 사람도 많고 큰 나라고 1등이다. 그래도 필요 없다. 잘났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중 결과를 보면 하나님 손안이다.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 외에는 참된 방향이 없다. 거기로 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있는가?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정복한다. 들어와서 언약이 되기 바란다. 노아는 알고 있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된다. 언약이 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리고 축복이다. 내가 결심해서는 절대 멀리 못간다. 이것이 내 안에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들어오면 여기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 그 힘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메시지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이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앞서간다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언약 부활 메시지 4개가 언약으로 뿌리내리겠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보혈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잡아라. 이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 안에 계속 나온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사람은 그 메시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이다. 강단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메시지가 들어와야 한다. 다윗 시대는 다윗에게 가면 답이 나오고 바울 시대는 바울에게 가면 된다. 다니엘시대는 다니엘에게 가면 답이 나온다. 롯은 아브라함을 몰랐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였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롯은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고 말씀 받은 기록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데, 안 갔다.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증거로 소돔 고모라에서 다 나왔지만 육신적으로는 싹 다 날라갔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중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잘 살펴보면 항상 근본 언약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각종 훈련 메시지 강단메시지 놓치면 안된다. 내가 답 날 때까지 내게 더 이상 응답 필요 없다는 정도 될 때까지 훈련 따라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성경에 있는 것을 더 구체화 한 것이 메시지이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받는 평신도는 잘 없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훈련이다. 지속하면 어느날 말씀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 계속 발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사람 드물다. 나도 그랬다. 만일 이게 되어지면 고레스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처럼 우리도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하는 것이다. 그냥 복음 운동 하는 것이다. 그냥 계속 제자를 세워서 그 다음단계 복음 운동 일어나도록 메시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 쓰실 것이다. 남미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하나도 안된다 해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언약이 들어가면 눈이 커진다. 세밀해지고 깊어진다.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이 되면 커진다. 생각이 커진다. 그림이 커진다. 미래에 대한 내 언약, 기도가 커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게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를 바란다. 복음 앞에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 3단계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다. 복음이면 끝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한다.